

高麗時代 地藏圖像에

보이는 몇가지 問題點

朴英淑

序 論

菩薩行을 根本理念으로 삼고 널리 北方으로 전파되었던 大乘佛敎에서 四大菩薩이라고 불리우는 文殊, 普賢, 觀音, 地藏은 일찍부터 民衆에 과고들어 널리 崇信되어온 보살들로서 大乘佛敎의 四大理念과 德을 代表하고 있다. 즉 文殊菩薩은 부처님의 智慧를, 普賢은 理와 行을, 觀音은 慈悲를, 地藏은 六道輪廻에 빠진 衆生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表明하고 있으며 中國에서는 일찍부터 이들 四菩薩의 說話와 얽힌 靈地를 네 聖山에 세워 禮拜供養해오고 있었으니 山西省 五臺山의 文殊道場, 四川省 峨眉山의 普賢道場, 浙江省 鎮海 앞바다의 補陀山을 觀音靈地로, 安徽省 九華山(혹은 九子山)의 地藏道場이 그것이다. 특히 地藏보살은 『宋高僧傳』의 「唐池州九華山化成寺地藏傳」^①의 記錄으로 고려시대 이후 우리나라 地藏信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이 說話에 의하면 俗性이 金氏인 地藏스님은 新羅의 王族으로 아마도 開元이나 天寶年間에 渡海入唐하여 九華山石室에서 端坐無念으로 苦行하다가 貞元十九年(A, D, 803)에 九十九歲를 일기로 入寂했는데 三年이 지나도 그의 顏貌는 살아있는 듯하고 몸에서는 쇠 소리가 나서 南臺에 浮屠를 만들어 奉安하고 그의 德을 길이 記念했다는 것이다^②. 이 金地藏傳이 新羅末期에 이미 널리 알려졌었는지 알 수 없으나 地藏菩薩이 顯身했던 곳이라고 하

여 九華山을 그의 靈地로 삼고 唐末부터 地藏信仰이 널리 전파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八世紀中葉에 이미 地藏信仰이 布敎되었을지 한 記錄이 『三國遺史』에 보이며^③ 실제로 石窟庵 彫刻에도 地藏像이 보이는 것은 주목해볼만한 사실이다. 高麗 太祖가 開國初 開京에 세웠던 十大寺의 하나로 地藏寺가 보이는 것은 『三國遺史』 王曆) 이 菩薩이 新羅 이래 계속 신앙되어 왔음을 간주할 수 있다. 특히 唐末의 僞經 (apocryphae) 『佛說十王生七經』의 전파와 함께 十王審判思想이 民間佛敎의 큰 흐름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자 地獄의 구제자인 地藏보살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보살로써 觀音과 함께 民衆속에 崇信되어 확고히 그의 위치를 굳혀왔다. 現存하는 高麗時代의 佛書중 적지않는 그림이 地藏觀 地幀畫임은 이를 立證하는 사실이라고 본다.

佛畫는 무엇보다도 예배대상이 되는 宗教畫로써 그 存在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敎理가 나타난 圖像을 정확히 解明하는 일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地藏圖像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만은 사실이지만^④ 아직도 약간의 문제점이 남아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筆者는 本稿에서 이런점들을 제시하고 해답을 모색해봄으로 地藏信仰의 敎理가 高麗佛畫에는 어떻게 表現되었으며 그러한 圖像을 통하여 고려시대 地藏幀畫의 特殊性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考察해보고자 한다.

地藏의 眷屬에 관한 問題

地藏菩薩을 主尊으로 하고 그의 眷屬(Parivara)을 나타낸 圖像으로 高麗時代 그림으로는 「地藏三尊圖」와 「地藏十王圖」가 있다. (圖 1, 2) 數幅의 「地藏十王圖」에 비해 前者의 경우는 鎌倉 圓覺寺의 그림이 아마도 現存하는 地藏佛畫중 中國, 日本을 통 털어서도 當代의 有一한 「地藏三尊圖」일 것이다^⑤. 地藏보살은 다른 보살들과 달리 裳衣위에 僧祇支와 覆肩衣를 입고^⑥ 袈裟를 걸치고 持物로는 寶珠를 들거나 六道를

상징하는 六環杖을 잡고 있고 머리는 圓頂이든지 頭巾을 쓴 僧形으로 묘사되고 있어 『地藏十輪經』⁹ 經典에 따른 것임은 周知의 사실이다.

특히 頭巾을 쓴 지장의 모습이 고려불화뿐만 아니라 中央亞細亞의 高昌地方과 敦煌石室에서 발견된 佛畫에서 많이 보인다(圖 3, 4, 5) 어떤 학자는 이 地域에 局限되었던, 그 지방의 관습에 따른 着衣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나⁷ 修行僧들에게 必須의인 승려의 着衣法이 여러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⁸. 실제로 이런 頭巾을 쓴 地藏像이 中國의 夔두리 地方뿐만이 아닌 四川省 大足石窟의 彫像과(圖 18) 現在 雲南省에 위치했던 宋代의 大理國 張勝溫이 그린 「梵像圖卷」중의 地藏像(註 ⑤ 참조) 역시 敦煌佛畫에 보이는 것과 같은 頭巾을 着用하고 있는 것을 보면 唐宋初에 中國의 西北部를 中心으로 流行하던 地藏圖像의 한 類形이 아니었던가 싶다. 頭巾을 쓴 地藏圖像의 源流가 中國 中心部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北宋 때 常謹이 A, D, 989년에 편찬한 『地藏菩薩靈驗記』에서 발견할 수 있다. 第二十九話「清泰寺沙門知[sic]祐感應地藏記」를 보면

沙門智祐는西印度人也、天福年中來至
而住清泰寺、所持像經中有地藏菩薩變像
拜本願功德經梵夾其像相者中央圓輪中
畫菩薩冠帽持寶錫左右十王像各五人、
左五者一泰廣王二初江王三宗[^{sic}]帝王
四五官王五閻羅大王、右五者一變成王二
太山王三平等王四都市王五五道輪王、一
一各具司命司錄府君典官等、⁹이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天福年間에(A, D, 936-943) 清泰寺(長安에 있던 절?)로 온 스님智祐가 西域人이었으며 그가 가져온 地藏像은 敦煌畫에서 흔히 발견되는 頭巾을 쓴 「地藏十王圖」였음을 알 수 있다. (圖 6) 특히 기-메 博物館에 있는 敦煌出土 「地藏十王圖」에는(圖 7) 太平興國八年(A, D, 983)의 銘文이 있어 위에 열거한 清泰寺地藏像

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文獻記錄과 年代가 확실한 繪畫資料로 보아서 頭巾을 쓴 「地藏十王圖」는 10세기 中葉에 당시 불교의 中心地였던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盛行하고 있었고 그쪽에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리라는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高麗의 「地藏十王圖」도 이렇게 東傳된 圖像을 模本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現存하는 敦煌畫와는 圖像의 여러 차이점이 보이는데 우선 高麗畫에서는 六道를 그리지 않았으며, 敦煌畫에는 흔히 十王이 독립하여 各各 策상을 앞두고 侍者들을 배치하여 가장 中國의 이라고 할 수 있는 官僚主義 양상을 저승에까지 이전시켜 表現하고 있으나 高麗畫에는 이들 十王이 地藏 밑에 羅列되어 단지 脇侍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圖 8)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中國의 地藏은 頭巾이 항상 양쪽귀를 덮고 있는 반면에 高麗畫에서는 반드시 두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道明和尚과 金毛獅子는 British Library에 所藏되어 있는 敦煌文書중에서 일명 「還魂記」(S. 3092)라는 짧은 글에 나오는 人物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실제로 銘文의 年代(A, D, 981)가 기록되어 있는 千手觀音圖하단 오른쪽의 지장그림에 이들 이름이 적혀있어 「還魂記」의 內容을 입증하고 있다. (圖 9)

사실이 그렇다해도 金毛獅子에 관해서는 약간의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還魂記」의 內容을 보면 文殊菩薩이 金毛獅子로 變身하여 地藏의 宗생구제를 돕고 있는 것을 道明和尚이 목격했다고 記述하고 있으나 Michel Symié가 지적했듯이 文殊菩薩은 佛敎의 地獄과 그리 큰 연관이 별로 없고 특히 大乘佛敎의 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文殊菩薩이 다른보살의 眷屬으로 그것도 계급이 낮은 일개의 動物로 전환했다는 것은 非論理的 思考라는 것이다¹⁰. 실상 모든 地藏幀畫에 보이는 金毛獅子는 형편없이 적은 동물로 地藏의 발끝에 묘사되고 있다. 구태여 文殊와 獅子의 연관성을 찾아보자면 六牙白象이 普賢의 乘物(Vehicle)인 것처럼 文殊의 乘物은 獅子라는 것 뿐이다.

이렇듯 地藏畫에 보이는 사자는 오히려 犬의 형상에 더 가까운 인상

을 버릴수가 없다. 사자는 六朝時代 西域으로부터 貢物로 바쳐져 中國으로 들어왔다고 하며, 一般人들은 行像供養이나 實物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도 長安을 제외하고는 드문 현상으로 一般畫家들에게는 상징적 동물로 남았을 것이다¹¹⁾. 이렇게 여러 점을 종합해 보면 지장화에 보이는 동물은 원래 사자가 아닌 다른 짐승을 묘사했던 것이 금모사자로 탈바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다. 現在 British Library에 있는 『佛說十王生七經』變相圖卷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圖10) 地獄에서 풀려나온 罪人들이 牛頭 馬頭鬼卒에 호송되고 있다. 지옥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양쪽 기둥 위에는 화염속에 두마리의 짐승이 앉아 있는데 이들은 다름아닌 地獄門을 지킨다는 一種의 들개인 狂이라는 짐승이다¹²⁾. 또한 敦煌 十王經卷을 摸本으로 해서 그린 것으로 알려진 高山 野山 聖壽院所藏의 地藏十王經變相圖에도 頭巾을 쓴 地獄을 中心으로 十王 등 脇侍들이 양쪽에 나열해 서 있고 놀랍게도 臺座 옆에는 두마리의 金毛獅子와 형체가 有似한 犬이 地藏을 향해 쭈그리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인다¹³⁾. 犬은 古代로 부터 罪人의 審判思想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¹⁴⁾ 특히 古代印度 神話에서 犬은 死界의 君主 Yama王과 관계가 깊다고 알려져 있다. 즉 Rg Veda에 보면 개는 聖스런 동물이었다고 하며 Yama王의 使者로써 두리번 거리는 네 눈을 가지고 死界의 노변에 앉아 길을 지켰다고 하니 아마도 인도의 古代信仰에서 영향을 받아 佛敎의 死後審判場面에 犬이 出現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 일일 것이다. 道明說話에 나오는 金毛獅子와 Yama王 使者였던 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根源이 다른 別個의 神話나 說話가 엮혔거나 誤傳되어 그 源流을 분명히 캐낼 수 없게 복잡하게 형성된 圖像의 한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圓覺寺 三尊圖의 道明和尚 맞은 편에는 붉은 용포에 원류관을 쓰고 풍채 좋은 재상같은 人物이 빨간 보자기에 經箱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中央을 향해 서 있는데 이 人物은 朝鮮時代 地藏幀畫의 榜記에 따라 「無毒鬼王」으로 命名하고 있는데 異意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無毒鬼王은

다 알다시피 「地藏菩薩本願經」一章 거의 끝머리에 나오는 地獄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방문하러 온 브라만女에게(실은 地藏菩薩의 本生談을 그린 것) 그 女의 功德으로 母親은 極樂往生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說法하신 부처가 文殊에게 「是鬼王無毒者 當今財首菩薩」이라고 하여 그가 地藏畫에서 頭光을 쓰고 財首菩薩로 表現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地藏本願經에 나오는 無毒은 그 性格이나 比重으로 보아 地藏信仰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보인다. 위에서 살펴 보았더니 無毒鬼王은 本願經이 알려졌다고 보는 時期에 그려진 것은 敦煌畫이나 宋畫를 摸本으로 그렸다는 寶福寺藏 「地藏眷屬圖」에도(圖11)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유독 모든 高麗畫에는 이 人物이 보이고 있어 그가 地藏信仰과 특별한 내력이 있는 人物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 人物의 등장은 고려시대 地藏圖像의 독특한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前述한 『宋高僧傳』의 「九華山地藏傳」과 內容이 비슷한 글이 年代와 出處 이상의 조그만 銅版의 뒷면에 주조돼 있다. 앞면에는 寶冠을 쓴 地藏이 寶珠를 들고 中央에 結跏趺座하고 앉아 있으며 양편에 十王이 배치되어 있다. 지장 바로 밑에는 道明이 錫杖을 잡고 서 있으며 그의 맞은 편에는 고려불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재상모양의 人物이 무슨 물건을 두 손으로 받혀 들고 있고 바로 臺座 앞에는 사자가 앉아 있음을 볼 수 있다¹⁷⁾. 또한 주목해야 할 일은 高麗의 地藏眷屬圖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中央의 세 人物만 頭光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뒷판의 銘文은 틀림없이 앞판에 주조된 變相圖를 說明하고 있으므로 그 內容을 여기에 옮겨 본다. (단지 글자가 너무 희미하여 筆者가 版讀할 수 없었던 字는 口로 남겨 놓았다)

地藏菩薩在六鐵圍山西第一重海。是大道場爲母說法界切利天。佛後一千五百年下生人世。我國之西新羅國王·子·姓名金喬覺。唐貞觀二年七月三十日生。永徽四年□□道海而來端坐九子山頭。七十五歲至。開元十三年七月二十夜成道。年九十九歲入定。二十(?)年至德二年七月三十

日顯靈起塔大□道場。閔公忽地一袈裟不非人力□□神通從空湧出。無數天神將閔公所拾之地一袈裟[輩(?)起造寶塔。九龍戲珠之地名九龍洞。地藏天神所造之塔至今每有光明出現。

이 銘文은 다시 말해서 九華山地藏傳記이며 地藏의 入寂한 年代는 「宋高僧傳」과 비교해 볼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宋高僧傳)에는 貞元十九年 A, D, 8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銘文에는 開元 16 A, D, 128年이라고 되어 있는 점등) 이는 文獻의 誤傳에 의한 것일 것이고 地藏의 이름이 金喬覺이며 新羅國王族出身으로 渡海하여 九華山에서 99세로 일생을 마쳤다는 주된 內容에는 두 글에 큰 차이가 없다. 이 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은 여기에 閔公이라는 人物이 등장하는 것인데 그가 홀연히袈裟하나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범상한 人物이 아니었음을 立證하는 일이며 地藏說話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⁸ 이 閔公이 一·二세기 宋代의 學者였던 周必大의 「九華山錄」이라는 글에도 보인다고 하니¹⁹ 前衛한 銅版의 記錄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또한 江東地方의 民間說話에 의하면 閔公은 九華山 근처 마을에 살고 있던有志였으며 돈독한 佛敎信者로 九華山 金地藏의 苦行에 감복하여 佛事를 많이 이룩했고 결국 出家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고 하며 이로인하여 그는 地藏의 脇侍로 등장하게 되었다²⁰. 近代清末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두 그림에도 역시 우리나라 地藏幀畫에 보이는 것처럼 地藏의 두 脇侍로 和尚과 儒學者 모습의 人物이 보이는데 이들 역시 이름은 틀리지만 九華山地藏說話에 나오는 同一 人物임이 밝혀졌다²¹.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宋代 이후의 文獻記錄과 여러 民間故事를 綜合해 볼때 적어도 高麗時代 地藏幀畫에 보이는 그의 오른쪽 脇侍를 과연 無毒鬼王으로 보아도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 생긴다. 일단 朝鮮朝 地藏佛畫에 無毒으로 되어 있으니 이시대 地藏도상에 異意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高麗時代의 地藏圖像에서 만큰은 九華山地藏說話와 깊은 연관이 있는 閔公이라는 學者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일 筆者의 추측이 옳다고 보면 어떤 내력으로 이 人物이 朝鮮朝地藏畫에서

는 無毒으로 변모했는지, 아니면 高麗時代부터 無毒이 地藏의 脇侍로 등장했다면 무슨 뚜렷한 理由라도 있었던 것인지는 신빙성있는 문헌資料를 통하여 더 조사해 보아야 할 問題點으로 남아있다.

이 두 脇侍와 함께 다른 地藏眷屬을 가장 完璧하게 묘사한 것이 아마도 베르린博物館의 「地藏十王圖」일 것이다. (圖8) 이들 眷屬들은 그들의 序列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었으며 細部の 묘사까지 소홀함이 없는 高麗時代 地藏佛畫중 圓覺寺 三尊圖와 함께 걸작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다²².

우선 圖像面을 살펴보면 敦煌畫에는 보이지 않는 四天王과 梵天 및 帝釋天을 左右對稱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敦煌畫에는 흔히 보이는 善惡童子는 高麗畫에는 나타나지 않고 수백년이 지난 후에야 李朝地藏圖像에 등장하고 있다.

高麗地藏幀畫에 보이는 이들 四天王, 梵天, 帝釋天, 司命 司錄들은 「佛說十王生七經」에 부처님 話法을 들으러 모여든 大眾으로 나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역할을 敦煌文書 가운데서 발견된 『地藏十齋日』에서 찾을 수 있다.

月一日善惡童子下八日太子下, 十四日察命阿錄下, 十五日五道大神下, 十八日閻羅王下, 廿三日天大將軍下廿四日帝釋下廿八日太山府軍下廿九日四天王下州日天曹地府下. 一日童子下念定光如來佛除齋除罪四十却不墮刀槍地獄. 八日太子下念藥師瑠璃光佛除齋除罪三十却不墮粉草地獄. 十四日察命下念賢劫千佛除齋除罪一千却不墮蕩湯地獄. 十五日五道大將軍下念阿彌陀佛除齋除罪二百却不墮寒水地獄. 十八日閻羅王下念觀世音菩薩除齋除罪九十却不墮劍林地獄. 廿三日天大將軍下念盧舍那佛除齋除罪一千却不墮我鬼地獄. 廿四日大山府君下念地藏菩薩除齋除罪九十却不墮纒截地獄. 廿八日天帝釋下念阿彌陀佛除齋除罪一千却不墮鐵鋸地獄. 廿九日四天王下念藥王藥上菩薩除齋除罪七千却不墮磔磨地獄. 州日大梵天王下念釋迦牟尼佛除齋除罪八千却不墮寒永²³.

이 글에서 보다시피 善惡童子, 四天王梵天, 帝釋天 등은 어떤 특정한

날에 下界하여 人間の 善惡行爲를 관찰해 보고 天上에 報告하면 人間の 壽命은 물론 罪의 輕重이 結定되기 때문에 이 날을 齋日로 定하여 修身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일종의 경고문인 것이다²⁴⁾. 이 『地藏十齋日』에 관해서는 『地藏本願經』第六章에서도 보이니,

於一日八日十四日十五日十八日二十三二十四二十八二十九日乃至三十日、是諸日等諸罪結集定其輕重南閻浮提衆生舉止動念。無不是業無不是罪……能於是十齋日對佛菩薩諸賢聖像前讀是經一遍東西南北由旬內無諸災難。當此居家若長若幼現在未來百千歲中永離惡趣。能於十齋日每轉一遍現世令此居家無諸橫病衣食豐溢。이다²⁵⁾。

地藏信仰이 唐末의 十王審判思想과 合流되어 民間佛敎에 침투되었을 때에는 이미 中國人 高유의 民間道敎에서 믿고 있었던 司命神(人間의 壽命을 결정하는 저승관리) 思想이 저변에 흐르고 있었고 이러한 여러 要素가 합쳐져 독특한 地藏信仰이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高麗時代의 地藏圖像은 단순히 十王을 中心으로 한 「十王經」만을 圖解한 것이 아니고 當代에 流布되어 잘 알려졌을지도 모르는 『地藏十齋日』도 圖像에 使用되었으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高麗時代의 「地藏眷屬圖」는 人間の 善惡行위를 감시하는 諸神들과 그 結果를 결정하는 十王과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에서 연민과 자비로 구제해줄 구원자로써의 地藏菩薩을 主尊으로 부각시킴으로써 地藏信仰의 根本敎理를 매우 뚜렷하게 圖解한 것이라고 보며 高麗時代의 地藏圖는 十王審判 思想이 주된 對象의 內容이라기 보다는 地藏中心信仰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敦煌畫와 틀린 高麗地藏圖의 특색이 아닌가 본다²⁶⁾。

地藏立像과 引路菩薩과의 關係

根律美術館과 福岡 善導寺의 地藏像은 긴 六還杖을 들고 몸을 약간튼 트립관가(tribhanga) 자세를 보이고 있다. (圖12) 특히 두 연꽃위에서 있다는 사실은 발자욱을 내 딛고 있는 즉 行動을 表示하는 것이며 더욱

기 뒷쪽으로 옷자락이 나부끼는 듯한 묘사는 걸어가든 방향인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독특한 자세의 地藏立像圖는 무엇을 意味하며 어떤 용도로 그려진 것일까 생각해 볼 문제이다.

비슷한 양식의 地藏圖이나 좀더 박동하게 表現한 그림들로 日本 鎌倉時代의 地藏圖가 많이 있는데 地藏이 死者를 極樂으로 맞이해 가는 「來迎圖」이다. 日本 그림들의 극적인 묘사에 비해 高麗의 地藏立像은 펍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이다.

敦煌의 地藏畫 가운데는 高麗의 地藏立像과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圖13)²⁷⁾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자세의 다른菩薩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기메 박물관과 大英博物館에 있는 唐末宋初로 추정되는 두 그림에서는(圖14, 15) 아름다운 자태의 貴婦人들을 인도하는 보살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 그림과 主題가 똑같은 그림이 기메博物館의 「地藏十王圖」(圖7)의 왼쪽 밑에 보이고 「南無引路菩薩」이라는 榜記가 보이므로 다른 두 그림도 「引路菩薩」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원래 引路菩薩이란 이름을 가진 특정한 보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經典에는 더욱 보이지 않으므로 供養菩薩이나 來迎菩薩처럼 그가 修行하는 임무에 따라 이런 이름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실상 引路菩薩은 死者를 樂土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性格上 觀音도 될 수 있고(圖14, 15) 地藏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⁸⁾. 『地藏本願經』에 보면 險道에 빠진 사람을 好道로 이끌어 安樂을 얻게 한다는 句節이 보인다.

是迷路人忽聞是語方知險道即便退步求出此路是善知識提携接手引出險道免諸惡毒至于好道令得安樂²⁹⁾。

이와같이 地藏菩薩은 반드시 死者만이 아니라 迷路에 헤매고 地獄에 떨어진 人間을 올바른 길로 樂土로 인도하는 「引路菩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高麗時代의 地藏立像도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³⁰⁾。

地藏觀音圖와 放光菩薩

마지막으로 考察해 보고자 하는 問題는 西福寺의 地藏觀音并立 圖像이다. (圖16) 이런 種類의 고려 그림으로는 이 그림 하나뿐인 줄 알지만 ③1 意外로 中國佛教美術에는 몇개의 例가 남아있어 주목이 된다. 우선 唐末로 추정되는 四川省 大足 北山石室에서 높은 寶冠을 쓰고 鉢을 들고 있는 觀音과 ③2 頭巾을 쓰고 錫杖을 짚은 地藏이 나란히 앉아 있는 彫像을 볼 수 있으며(圖17) 역시 같은 石窟에서 두 보살의 立像을 發見할 수 있다. (圖18) 또한 敦煌佛畫가운데서도 地藏觀音이 한 幅에 그려진 그림이 몇점 발견되었는데(圖19, 20) 이중 現在 日本에 있는 그림에는 「放光菩薩」이라는 榜記가 있어 이들 두 보살이 放光菩薩로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③3. 이들에게 왜 이런 명칭이 붙었으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文獻記錄에서 찾아보기로 하겠다. 『地藏菩薩靈驗記』에는 菩薩像에서 빛이 발하여(放光) 신기하고 영험스런 일이 일어난 故事들을 기록하고 있는데(二, 一一, 二四, 二八話) 이중에서도 특히 第一話는 地藏과 觀音像에 대한 이야기이다.

梁朝漢州德陽縣善寂寺東廊壁上張僧繇畫地藏菩薩并觀音各一軀狀若僧貌歛披坐。時人瞻禮異光煥發至麟德元年寺僧瞻敬難異於常是以將稽親壁上模寫散將供養發光無異……菩薩現光時國常安泰復有商人妻姪娠經二十八日不產忽觀光明便摸寫一心發願於菩薩當夜便生一男相好端嚴而見者歡喜舉世號放光菩薩。③4.

善寂寺의 壁畫그림이 실제로 梁代의 有名한 畫師 張僧繇가 그렸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麟德元年(A, D, 664)에 地藏觀音菩薩像에서 상서로운 빛이 發하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으며, 심지어는 模寫本에서조차 빛이 계속 났었다니 어지간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 故事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들 보살상에서 現光이 있을 때면 나라는 항상 평안했으며 해산할 달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 婦人이

一心으로 이들 보살상에게 發願했더니만 바로 그날밤에 相好가 단정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런 영험을 보고 世人들은 이 두菩薩을 放光菩薩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비슷한 記錄이 『覺禪楚』의 「聖觀音」條에도 보인다.

唐開元寺堂壁觀音地藏二體相並繪之世人名放光菩薩婦人皆蒙平產。③5.

이렇듯 觀音地藏像은 唐代와 宋代에 걸쳐 특히 安産을 원하는 부인들 사이에 崇信되었던 것 같으며 이러한 俗信은 자연히 高麗까지도 전하여 왔던 것으로 福井縣 西福寺 地藏觀音圖가 그려진 것이 아닌가 싶다.

放光菩薩과 연결되어 地藏과 觀音이 약간 다른 형식으로 그려진 그림이 敦煌畫가운데 또하나 발견됨으로써 이 두 보살의 性格과 修行임무, ③6

호흡의 類似性을 시사해주고 있다. 기-메 博物館에 있는 이 그림은(圖20) 上下 이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윗쪽에는 千手觀音을 그리고 아래 쪽에는 地藏보살을 그의 眷屬들과 함께 보여주고 있으며 맨 아랫단에는 네명의 侍主가 합장을 한 자세로 중앙을 향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前述한 981년의 銘文이 있는 千手觀音圖 하단에 地藏圖가 있는 것도 비슷한 例이다). 山林太市郎씨의 研究에 의하면 千手觀音은 「地藏」의 반대되는 「天藏菩薩」이라고 하여 8世紀 中葉 盛唐때 부터 信仰되었는데 특히 地藏과 함께 영험이 대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③6. 이들은 아마도 放光菩薩에서 출발하여 八世紀頃에 傳來된 密敎의 圖像인 千手觀音에 中國人 古有的 陰(地)陽(天)思想이 부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觀音과 地藏은 天和地를 상징하고 있어서 이들 둘의 調和를 이룬

결합은 무한한 기적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이는 佛教圖像이 中國古有的 俗信 信仰과 결합하여 새로운 도상이 이루어진 독특한 中國佛敎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例라고 볼 수 있다. 八世紀에 唐과 奈良에서는 상당히 유행을 본 듯한 天藏(觀音)과 地藏菩薩信仰이 ③7 同時代의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는지는 記錄의 不在로 알 수 없는 사실이지만 筆者의 意見은 唐代의 天藏地藏信仰이 더욱 발전하여, 다른 나라에



圖1·地藏三尊圖、高麗時代、絹本著色、鎌倉円覺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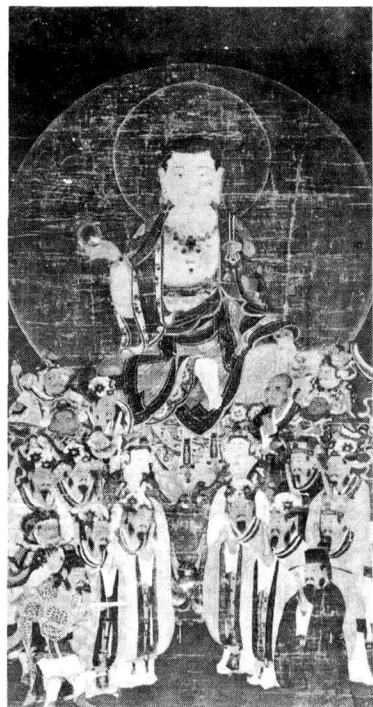


圖2·地藏十王圖、高麗時代、絹本著色、岡山縣日光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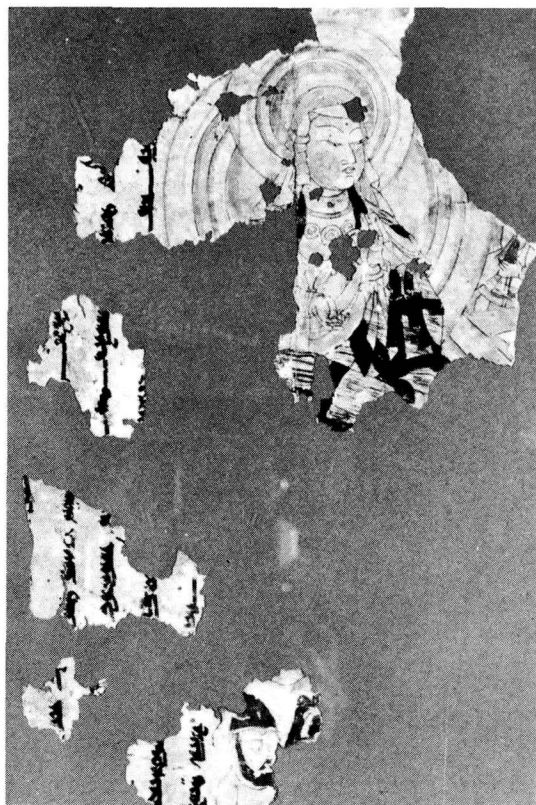


圖3. 地藏(Fragment). Turfan出土. 十世紀. 絹本著色. Museum fur Indische Kunst, Berlin



圖 4. 地藏十王圖卷(Fragment). 敦煌出土
紙本著色. The British Museum,
London



圖 5. 地藏圖. 敦煌出土. 絹本著色.
The British Museum,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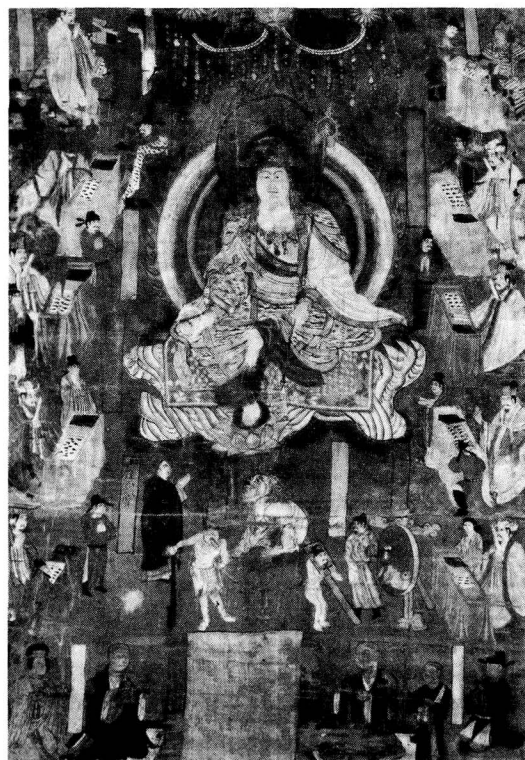


圖 6. 地藏十王圖. 敦煌出土. 絹本著色
The British Museum, London



圖 7. 地藏十王圖. 宋太平興國八年(A.D.983).
敦煌出土. 絹本着色. 225.1×59 cm
Musée Guimet, Paris



圖 8. 地藏十王圖. 高麗時代. 絹本著色.
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Ber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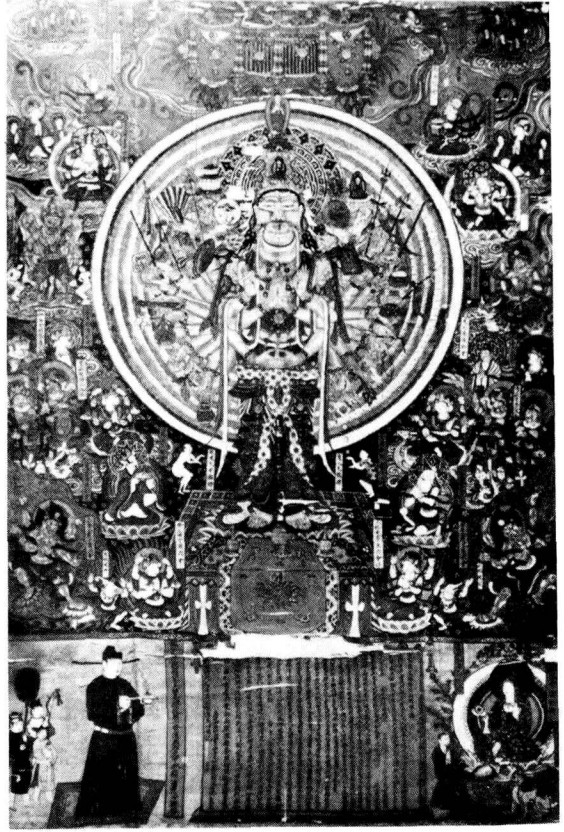


圖 9-1. 千手觀音圖. 北宋太平興國六年(A.D.981).
敦煌出土. 絹本着色. 189×125 cm.
Musée Guimet, Paris



圖 9-2. 部分圖. 地藏菩薩圖



圖 10. 十王生七經卷變相圖(末尾部分). 敦煌出土. 紙本著色.
The British Library, London



圖 11. 地藏眷屬圖. 鎌倉時代. 絹本著色
岡山縣立博物館奇陀(宝福寺藏)



圖 12. 地藏立像. 高麗時代.
絹本著色. 福岡善導寺



圖 13. 地藏立像.
敦煌出土. 絹本著色.
The British
Museum,
London



圖 14-1. 引路菩薩. 唐9世紀.
敦煌出土. 絹本著色.
The British
Museum, London



圖 14-2 引路菩薩. 10世紀末
敦煌出土.
絹本着色. 93×53 cm
Museum Guimet,
Paris



圖 15. 引路菩薩. 宋10世紀.
敦煌出土. 絹本著色.
The British
Museum, London



圖 16. 觀音地藏並立圖。
高麗時代。十四世紀初
絹本着色
99×52.2 cm
福井縣。敦賀
西福寺



圖 17. 地藏觀音座像。唐。
四川省大足北山石窟。



圖 18. 觀音地藏立像。唐。
四川省大足北山石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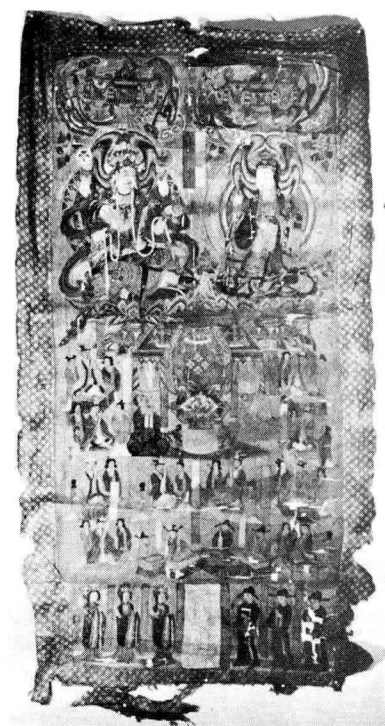


圖 19. 觀音菩薩圖와 地藏十王圖。
10世紀。敦煌出土。
絹本着色。124×59 cm
Musée Guimet, Paris



圖 20. 千手觀音地藏十王圖。
北宋10世紀。敦煌
出土。麻本着色。
125×50 cm
Musée Guimet,
Paris.



圖 21. 阿彌陀淨土圖와 地藏十王圖
唐9世紀末。敦煌出土。
麻本着色。127×68 cm
Musée Guimet, Paris



圖 22 · 地藏觀音立像(二幅) 高麗時代、絹本著色
南法華寺藏、奈良國立博物館奇陀

서는 아직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이 특이한 朝鮮時代의 「三藏圖像」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과제라고 본다.

結 論

以上 考察해 본점을 종합해 보면 高麗의 地藏圖像에 나타나는 몇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고려의 地藏畫는 敦煌畫에 흔히 보이는 六道의 묘사라던지 善惡童子가 생략되고 人間의 善惡의 行動자체를 감시하는 四天王、帝釋、梵天이 地藏의 권속으로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唐宋畫에 보이지 않는, 地藏說話와 密接한 관련이 있는 閔公이(李朝地藏畫에서는 無毒鬼王으로) 道明과 함께 地藏의 제일 중요한 脇侍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特記할 것은 唐부터 시작하여 宋元時代에 盛行했던 十王圖가 高麗佛畫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데 이는 아마도 十王審判思想자체 보다는 慈悲로운 救濟者로써의 地藏菩薩이 더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 고려시대 地藏圖에서 보는 主尊의 압도적인 부각과 작게 묘사된 권속의 比例와 그들의 배치는 地藏中心敎理에서 해석해야 될 것이다.

地藏十王信仰은 阿彌陀淨土信仰에서 파생되어 地藏眷屬圖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점차 독자적인 Pantheon을 形成해 놓았으나 地藏信仰의 敎理는 淨土信仰과 分離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唐末 會昌廢佛(A, D, 845)과 연속된 進란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佛敎는 口稱念佛로 極樂에 往生하며 영원한 生의 確實性을 보장해 주는 淨土宗이야말로 身分의 귀천이 없이 큰 호소력을 지닌 宗派였다(蒙古 침입 이후 내란이 잦고 나라가 어수선해진 高麗後期에 淨土界의 阿彌陀、觀音、地藏佛畫가 대부분인 것은 當代의 時代相을 反映한 것이라고 본다)。기쁨과 幸福으로 충만한 極樂과는 반대로 惡業에 따라 가야 할 極苦의 地獄은 상상만 해도 樂土와는 좋은 대조를 보이며 이런 主題를 그

림으로써(圖21)人間社會의 가장 基本的인 倫理인 勸善懲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亡者의 魂은 後世代의 吉凶禍福과 家門의 興亡盛衰를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던 家族中心의 中國人의 社會觀에서 볼 때 亡者를 安樂하게 해주는 일이란 무엇보다도 重要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地獄의 구원자인 地藏菩薩은 누구보다도 가깝고 질박하게 여겨지는 菩薩이었던 것이다. 信子들은 그의 그림을 집에 奉納하고 供養함으로써 死者의 冥福을 祈함은 물론이었으며 現世의 災害를 제거하며 延命을 願하는 수법으로 使用하였던 것이다.

【註】

① 梵寧(918—988)編『宋高僧傳』卷20、大正藏50、P.729b、c.『海東傳史』33、釋誌金地藏。

② 「唐池州九華山化城寺地藏傳」釋地藏。姓金氏。新羅國王之支屬也。慈心而貌惡。顯悟天然。七尺成軀。於時落髮涉海捨舟而徒。振錫觀方。邂逅至池陽都九子山焉。心甚樂之。端坐無念。至德年初。有諸葛節。卒杓父自鹿登高。深極無人雲日鮮明。居唯藏孤然閉目石室。其房有折足鼎。鼎中白土和少米烹而食之。羣老驚歎曰。和尚如斯苦行。我曹山下列居之咎耳。相與同構禪宇。不累載而成大伽藍。建中初張公嚴典是邦。仰藏之高風。因移舊額奏置寺焉。本國聞之。率以渡海相尋。以貞元十九年夏忽召家告別。加跌而滅。春秋九十九。其屍坐於函中。泊三稔。開將入塔顏貌如生。舉昇之動骨節。若感金鑽焉乃立小浮圖於南臺。是藏安坐之地也。前揭『宋高僧傳』

③ 『三國遺史』卷4「眞表傳簡」「關東楓岳針淵數石記」

④ 松本榮一「被幅地藏菩薩像の分布」『東方學報』(東京)3、pp.141—170; 李東洲·文明大『高麗佛畫』1981, pp.201f., 250ff.; Michel Soyminé, Notes d'Iconographie Chinoise: Les acolytes de Ti-sang, I et II Arts Asiatiques XIV, pp.45—78, XVI, pp.141—170; M.W. de Visser, "The Bodhisattva Ti-sang(Jizo) in China and Japan" *Orientalische Zeitschrift* Jg.2 (1913), 178—198; Jg. 3 (1914/15), 61—92, 209—242, 326—367 敦煌出土 地藏畫卷 卷之二 Roderick Whitfield, *The Art of Central Asia*, The Stein Collection in the British Museum Vol. I & II (Tokyo:

Kodansha 1981, 1982) 참조한 것.

⑤ 大理國 張勝溫의 그린 「梵像圖卷」(1173—1176) (現대만 古宮博物館藏)에 地藏三尊이 보이지 않은 臺座 아래쪽에는 寶冠을 쓴 菩薩形과 頭巾을 쓴 聲聞形의 地藏을 배치했으므로 地藏과 권속을 그린 「地藏三尊圖」라고 볼 수 없다. Helen, B. Chapin, *A Long Roll of Buddhist Images*, Ascona 1972, p.41.

⑥ 僧侶들의 上衣인 왼쪽 어깨를 덮는 僧祇支와 오른쪽 어깨를 덮는 覆肩衣를 붙여 만든 것이 偏衫이라고 하여 大衣 밑에 입던 옷으로 六朝時代부터 流行되었던 모양이다.

「此方往古並服祇支。至後魏時如加右袖雨邊合謂之偏衫。截領開祐猶存本相。故知偏衫左肩即本祇支右邊即覆肩衣也」라고 적혀있다. 逸見梅榮『佛像の形式』1970, p.337 참조.

⑦ 河原由雄「敦煌畫地藏圖資料」『佛教藝術』97(1974), p.113.

⑧ 『文物』11(1979), p.23 圖3의 祖師像과 『美術史』42(1961), p.42의 圖9의 10 修行僧 참조.

⑨ 『續藏經』一輯二編乙二十二套二册 '이 기록의 「本願功德經」은 「地藏菩薩本願經」을 뜻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地藏本願經」은 10세기 중엽에 이미 알려졌던 經典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⑩ Michel Soyminé, 「地藏の師子について」『東方宗教』19, p.47.

⑪ 服部克彦「中國における 佛教藝術と獅子」『印度學佛教學研究』27(1965), pp.225—228.

⑫ 狩野 역시 朝廷에 있던 獄을 意味하기도 하는데 들개(野犬)와 지구의 밑 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⑬ 岩佐貴三「敦煌本十王經圖卷と動物神判思想」『印度學佛教學研究』27(1965) pp.210—213.

⑭ 禿氏祐祥·小川貫次「十王主七經證圖卷の構造」『西域文化研究』5, 中央大學佛敎美術』京都 1962, 圖 497d, p.289.

⑮ 註⑭ 參見.

⑯ A.B. Keith, *The Religion and Philosophy of the Veda and Upanishads*, Cambridge (Mass.) 1925, p.150, 192, 406ff 參見.

① 『大正藏』13, No.412, p. 779a.

② 이 銅版은 京都의 玉林寺 所藏이라고만 되어있고 거기나 다른 어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가. 河原由雄 前掲論文圖 11, 12 p. 116f 참조.

③ 河原由雄 関公의 金喬覺이라고 부른 듯하며 銘文을 살펴본 것. 이 단어가 한자. 同註.

④ Arthur Waley, *A Catalogue of Paintings Recovered from Tun-huang by Sir Aurel Stein*, London 1931, p. 30. 筆者가 불행히도 이 단어를 잘못 하지 못했으므로 讀者의 양해를 구한다.

⑤ Karl Ludwig Reichelt, *Truth and Tradition in Chinese Buddhism—A Study in Chinese Mahayana Buddhism—Shanghai 1927*, p. 111.

⑥ Henri Doré *Researches into Chinese Superstitions*. Vol. VII. Shanghai 1922, p. 248. 여기서 関公. 이란 武侯라고 이름의 學者라 나온다. 또한 Clarence Burton Day, *Chinese Peasant Cults*. Taipei 1969(1st. ed. Shanghai 1940), p. 144 가도 참조.

⑦ Pak Youngsook, "Ksitigarbha as Supreme Lord of the Underworld", *Oriental Art* 23, No. 1, 1977, pp. 96—104.

⑧ The British Library S. 2568. 『大正藏』85, p. 1299f. 여기서 보다는 關 자와 이름이 뒤바뀐 것이라 있다(예를 들면 24日과 28日)。「地藏十齋日」의 關係에서 세세히 연구한 Michel Soyminé, "Les Dix Jours de jeûne de Ksitigarbha", *Contributions au études sur Touen-Houang*. Genève-Paris 1979, pp. 135—159 참조할 것.

⑨ 四天王의 觀察使를 내려보내 人間の 행위를 조사하게 한다는 기록은 東晉(317—419)의 僧伽提婆(sanghadara)가 번역한 『增臺阿含經』(Ekottarāgama)에 나타나 『大正藏』2, p. 624b.c) 宋代(六朝)에 번역된 『佛說四天王經』에 六齋日에 그를 자신이 내려오던지 관찰사를 보내던지 하여 인간의 행위를 감수하여 壽命의 長短을 결정한다고 한다(『大正藏』15, No.590, p. 118c).

⑩ 十王圖像이라고 다루어야 할 만큼 복잡하고 여러 學者들이 考察했으므로 本稿에서는 생략한다. 특히 禿氏祐祥・小川貫次 前掲論文과 酒井忠夫「十王信仰に關する 諸問題」及び 閻羅王受記經』『齊勝先生古稀祝賀記念論文集』

東京 1937, pp. 611—656 참조할 것.

⑪ Mission Paul Pelliot XIV. *Bannières et Peintures de Touen-Houang Conservées au Musée Guimet*. Paris 1974, pl. 105—112.

⑫ 龍精一「敦煌出土引路菩薩圖について」『國華』383(1922), p. 340—342; 松本榮一「引路菩薩について」『國華』387(1922), pp. 51—54; 塚本善隆「引路菩薩信仰の研究」『東方學報』1(京都 1931) pp. 130—182.

⑬ 『大正藏』13, p. 785a.

⑭ 現代佛教儀禮에서 地藏信仰과 관련된 「引路王菩薩」이라고 하는 亡者의 鬼을 法堂안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行할 이라고 한다. 塚本榮一「韓國佛教儀禮の研究」東京 1976, pp. 390ff.

⑮ 奈良國立博物館에 寄託되어 있는 南法華寺 地藏과 觀音立像(圖22) 樣式과 手法. 일차히 미러' 비록 그 幅의 簇子에 따른 그려져 있으나 한 장이 그려진 것임이 분명하다. 京都清淨華院에 있는 南宋 普悅의 三幅의 簇子에 그려진 「阿彌陀三尊像」처럼 원래 阿彌陀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으며 簇子의 圖像이 당시 없었다. 그러나 地藏觀音并立圖로도 볼 수 있을 것 이다.

⑯ 鉢(pātra)가 印度佛像에 가끔 보이는 것처럼 觀音 持物의 하나이다. 沈見梅 榮「前掲冊」p. 222에서 E. Dale Saunders, *Mudra*, New York 1960, p. 144 참조. 우리나라 佛像의 例로는 魯斐筆「阿彌陀八大菩薩」小漆屏의 觀音(「菩薩」아름추게서 두 번째) 鉢을 두 손으로 들고 있다.

⑰ 이 그림이 松本榮一「敦煌畫拾遺」『佛敎藝術』28(1956), p. 67에 수록되어 있다.

⑱ 『續藏經』一輯二編乙二十二套二冊.

⑲ 小林太市郎「支那に於ける訶利帝一その 信仰とその圖像について」『支那佛敎史學』二輯 3卷, 1938, p. 23 참조.

⑳ 小林太市郎「奈良朝の千手觀音」『佛敎藝術』25, 1955, p. 63f.

㉑ 同書 pp. 55—80.